

사할린주
사회정치신문

Общественно-
политическая газет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새고려신문

СЭ КОРЁ СИНМУН (НОВАЯ КОРЕЙСКАЯ ГАЗЕТА)

2023년 7월 21일(금)
---(윤력 6월 4일)---
Пятница
21 июля 2023 г.
№ 28 (12045)
1949년 6월 1일 창간

Цена свободная



사할린의 졸업생들, 우수한 학업 성적으로 각각 10만 루블리 받아

지난 17일 유즈노사할린스크에서 주내 학교 최우등 졸업생 시상식이 있었다. 이날 사할린주 교육부 아나스타시아 키테와 장관이 졸업생 45명에게 '학업 특별 우수성' 배지와 기념 디플롬을 수여했다. 표창된 졸업생들은 학년마다 모든 과목에서 최고 점수 5점을 연간 및 최종 점수로 따내고 졸업 국가시험에서도 '우수'등급으로 통과한 학생들이다. 이들 모두가 우수한 학업 성적으로 사할린주에서 10만 루블리의 상금을 받았다.

이번 행사에는 알렉산드롭스크-사할린스키, 돌린스크, 코르사코브, 노글리, 포로나이스크, 홈스크 구역들과 유즈노사할린스크 시의 우등생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

키테와 장관은 올해 우등 졸업생 수가 증가했으며 이는 지역의 큰 자부심이라고 언급했다.

◀ 행사장에서. (이예식 기자 촬영)

존경하는 사할린주의 상업 근로자 여러분!

직업명절을 맞아 진심어린 축하를 전합니다! 사할린주의 성인 6명 중 1명은 상업에 종사합니다. 작은 시골 상점의 판매자부터 대형 체인 슈퍼마켓의 관리자에 이르기까지 이 모든 사람들이 중요한 사회적 과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사할린과 쿠릴 주민들에게 물품을 제공하고 섬들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지역의 매점에는 다양한 종류의 제품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사할린과 쿠릴 회사의 제품이 최고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니 보기가 좋습니다. 덕분에 사할린 주의 농업, 지역 식품 및 어업 산업은 발전을 위한 추가적인 자금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체인 상점 35개가 새로 문을 열었습니다. 현재 사할린 지역에는 기본 식료품을 생산 가격으로 또는 최소 소비자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는 760개 이상의 다양한 매장이 있습니다. 이러한 상점들은 사할린과 쿠릴 주민들 사이에서 매우 인기가 있습니다.

모든 상업 종사자 여러분들의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여러분이 지속적으로 전문 기술을 향상시키고 고객 서비스의 질을 높이며 업계가 직면한 과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해 나갈 것이라 확신합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에게 새로운 성공과 건강, 번영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상업인의 날을 축하드립니다!

사할린 주지사 알레리 리마렌코

중국 기업들, 사할린주의 새 생산장 및 기업 설립에 관심

지난 주 알레리 리마렌코 주지사의 주도로 사할린 대표단이 이들간의 중국 방문 기간 동안 32개 기업의 경영진을 만났다. 그중에는 석유 및 가스, 석탄, 어업 및 기계 제작 산업, 운송 및 관광업 기업이 포함되었다. 중국 기업 대표들은 섬지역에 새 기업 설립을 비롯, 사할린 주와의 협력에 대해 관심을 표명했다.

단기 출장 기간 동안 섬 대표단 참가자들은 사할린과 쿠릴열도에서 이미 시행 중이거나 준비 단계에 있는 여러 유망 프로젝트에 대해 잠재적 투자자와 접촉했다. 중국 자본을 활용하면 프로젝트들이 더 빨리 실현될 것이다. 협력의 기본 조건은 중국 측이 사할린 주 현지에서 사업을 해야 하고 이 곳에서 세금을 납부하려는 의지가 있어야 한다.

중국 사업가들은 사할린 석유 및 가스 프로젝트에 큰 관심을 가졌으며 특히 이 프로젝트에 관한 서비스 제공 문제에 큰 관심을 보였다. 유즈노사할린스크에 건설 중인 석유가스산업단지도 잠재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었다. 이 부지에서는 서비스 회사가 탄화수소를 생산하는 회사에 서비스를 제공한다. 첫 단계는 2024년 초에 시작될 예정이다. 중국 기업들도 이 단지 조성 프로젝트에 참여할 계획이다. 중국의 투자는 필수 서비스의 현지화 정도를 높일 것이

다. 사할린 예산의 주요 수입원인 석유가스 산업은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될 것이다. 결과적으로 사할린 지역은 사회적 프로그램 시행량을 더 늘리고, 노후건물에 거주하는 시민을 위한 대규모 주택 건설을 수행하고, 영토의 교통 접근성을 개발하고, 도시 및 지역 주민들을 위한 편안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게 된다.

한 중국 투자자는 사할린 섬의 중앙지역에 사업을 시작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직접 투자 외에도 수출에 사용될 알렉산드롭스크-사할린스키 항구에 새로운 안벽을 건설하고 이 지역의 일부 도로를 재건할 계획이라고 했다.

중국에서 열린 사할린 대표단 회의에서 산업 협력을 위한 여러 분야가 윤곽을 드러냈다. 중국 기업이 사할린 지역의 영토에서 무인 항공기를 조립할 계획도 있다. 첫 번째 테스트용 무인 항공기는 빠르면 올해 안에 출시될 예정이다.

중국인 여행객은 매년 1억 5천만 명 이상이 전 세계를 여행한다. 중국인들의 러시아 극동 지역 방문에 대한 관심은 점점 높아지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중국의 주요 기업인 "CTrip"은 산동성과 유즈노사할린스크 간의 전세기 운항 문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사할린주정부 측이 전했다.

단신

사할린주, 연초부터 8번째 침몰 선박 처리

"SDS 005"라는 이름의 난파선은 홈스크 구역의 해저에서 인양되었으며, 작업은 지란스코예 마을에서 진행되었다. 사할린주 정부의 홍보실은 연방 프로젝트 "대청소"의 일환으로 연말까지 코르사코브, 세웨로쿠릴스크 및 네웰스크 지역에 있는 총 26개의 난파선을 제거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를 위해 주예산 3억 루블리 이상이 할당되었다. 다수 비용은 고철 판매와 연방 정부 환금을 통해 회수된다.

유즈노사할린스크, 상업인의 날에 박람회 개최

상업 근로자들의 날을 맞아 22일(토) 9시부터 16시까지 유즈노사할린스크 '돔 트르고블리'쇼핑 센터 근처 있는 행사장에서 테마별 박람회가 열린다.

박람회에서는 요리, 베이커리 제품, 육류, 생선, 유제품은 물론 과일, 채소, 딸기 등 섬 생산자들의 상품을 구입할 수 있다.

또한 오전 11시부터 박람회 방문객을 위한 공연과 마스터클래스들이 펼쳐진다.

유즈노사할린스크, '북아시아-고대의 계승자들' 전시회 열려

북방 소수민족 원주민에 관한 전시회가 사할린주 향토박물관에서 7월 21일 열린다. '북아시아-고대의 계승자들'전시회에는 북아시아 민족의 경제 활동, 생활, 문화를 보여주는 러시아 국립 민족지학 박물관(상트페테르부르크)의 소장품들이 전시된다.

새고려신문

2023년 하반기 신문 구독 계속

존경하는 독자 여러분! 2023년 하반기 새고려신문 구독신청을 계속함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사할린 한민족 지를 애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1개월 구독료는 101루블리입니다. 신문 인덱스는 ПР575입니다. 신문은 주내 모든 우체국에서 구독할 수 있습니다.

(편집부)



올 7월 22일은 러시아 상업 근로자 날

우 미하일 사장: 가족을 소중히 여기고 한국 노래를 즐기는 상업인

러시아에서는 매년 7월 4번째 토요일에 상업 근로자들의 날을 기념한다. 오늘 소개하고자 하는 분은 유즈노사할린스크 시 '그린팔라스'쇼핑센터(미라 거리)에 소재하는 슈퍼마켓의 월급사장 우 미하일(1984년생)이다.

필자는 그가 사할린국립대 한영과에서 공부할 때부터 지켜봤었고 여러 번 그에게 인터뷰를 부탁했는데 본인보다 훨씬 더 좋은 대상이 있을 거라며 항상 거절했었다. 이번에는 존경하는 지인을 통해 접촉해 드디어 취재할 기회를 얻었다.

미하일은 5년동안 그린팔라스 쇼핑센터에 있는 G마켓을 운영하고 있다. 2014년 그는 '그린팔라스'아파트 단지를 운영하는 회사에 취직해 생산기계부서 매니저로 근무했다. 다들 잘 아시다시피 여러 차례 아파트 단지공사를 하는 그린팔라스의 주요 운영자들은 한국인들이다. 공사와 운영에 주로 한국 전문가들이 참가한다. 한국어에 능통한 미하일은 공사 관련 견제, 기계 등 구입 업무를 맡았다. 나중에는 신축아파트 판매 업무도 했다. 그린팔라스 운영자들이 쇼핑센터에 슈퍼마켓을 세우기로 했고 우 미하일에게 운영담당을 맡겼다.

"우리 마켓은 이미 5년이 되었고 단골 고객의 80%이상은 그린팔라스 아파트단지 거주자들입니다. 이 곳에 동포와 한국분들이 많이 살다보니 다른 매점보다 한국식품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다른 데보다 라면 종류가 더 다양하고 많거든요."라며 우 사장이 매점 소개를 하였다.

매점 관리에 신경을 많이 써야 하고 식품 선택, 매매업체들과 계약 등

여러 일이 많다. 미하일은 이 일이 체질에 맞는 것 같다고 한다.

그는 마켓 오픈 준비과정부터 매일매일 운영하는 과정을 알아가며, 소비자의 요청, 수요, 시장 움직임, 소비자 심리 등을 빠르게 파악하는 것도 배워갔다. 이것이 올바른 판매자의 일이다.

상업 종사자로서 그는 직원을 뽑을 때 정직과 성실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 진심과 신뢰를 우선에 두는 것은 직장에서만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 관계에서 중요하다고 한다.

그는 늘 미소를 짓고 사람들에게 항상 친절하게 대해주어서 밝은 인상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종종 그를 애칭인 미사라고 부른다.

사할린한인사회에서 그는 잘 알려진 얼굴이다. 말 그대로 그의 얼굴을 많은 동포들이 알고 있는데, 사할린노래자랑에서 두세 번 수상하기도 했고 동포행사 진행자로서도 만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의 진행 경력은 사할린국립대 한영과 재학시절부터 시작됐다. 그가 한국어말하기대회 진행을 맡기도 했고 한국어 진행이 필요한 사할린주한인협회 등 행사가 있을 때마다 정말 좋은 사회자였다. 그는 행사에서 가끔 노래도 부르곤 하는데, 필자에게는 그가 부른 사이의 '오빠 강남 스타일'이 인상에 남았다.

어린시절, 미하일은 할머니 덕에 다니기 좋아했다. 할머니가 그에게 한글을 가르쳐주었는데 쓰기, 읽기는 좀 했지만 한국말로는 대화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 그래서 할머니와 한국말로 얘기하는 것이 소원이었다고 한다. 그가 10학년때 사할린국립대 한영과 교사들이 그가 다니던 체



호브 학교를 찾아와 학교와 학과 소개를 했는데 그때 처음 그 과에 입학할 마음을 먹었다. 그러나 시험에 통과하지 못했고 그후 다행히 한 광고에서 같은 학과가 사할린대 유즈노사할린스크 경제법률정보대학에도 있다는 걸 알게 되어 그 대학 한영과에 입학했다.

미하일이 3학년이 되었을 때 제대로 한국어 실력을 쌓을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왔다. 운 좋게 한국 동서대학교의 '사할린 동포 청소년 인재양성 프로그램'의 1기 선정자가 되어, 2004년 2월에 부산으로 떠났다. 미하일은 동서대 국제관계학부 국제관광을 전공했고 4년을 장학프로그램으로 공부를 한 후 사할린으로 돌아왔다. 때마침 사할린국립대에서 전학 제안이 들어와 사할린대학을 졸업하고 아버지가 원한대로 러시아 대학 졸업장을 손에 쥐게 되었다.

한국생활은 처음에는 많이 힘들기도 했다. 막내 아들로 부모의 보살핌만 받다가 일상 생활의 어려움을 몰랐는데, 차츰 적응해 나가며 한국은 그에게 삶의 좋은 학교가 되었다.

동네 슈퍼에서 우연히 우씨 어르신들을 만나 뿌리를 찾아 미사의 할아버지 고향인 안동에도 가보았다.

할아버지는 미사의 아버지가 18개월 때 돌아가셔서 이름외에는 아무 정보가 없었다. 지인들이 말한 출생년도도 차이가 있었다. 할아버지의 정보를 알아내지 못했지만 할아버지의 고향을 다녀온 것만으로도 감사하게 생각한다.

그리고 한국에서 또 하나의 재능을 찾을 수 있었는데, 바로 노래를 부르는 것이었다. 미사가 어렸을 때부터 음악에 대한 관심이 있어 음악학교에 갈 정도였는데, 한국에서는 기회가 생길 때마다 노래방을 찾았다.

"어머니가 말씀하시길, 제가 어릴 적에 이웃집에서 음악을 틀어 놓으면 뭘 하고 있든 다 멈추고 벽에 귀를 기울이며 춤을 추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음악교육을 시켜주셨어요"라고 미하일이 이야기했다. 피아노를 배우고 싶었는데 집이 너무 좁아서 피아노를 들일 공간이 없는 탓으로 부모님은 아코디언을 가르쳐주는 것으로 설득했다.

음악교육과 노래실력은 인생에서 큰 역할을 했다. 2008년 사할린국립대에 전학하면서 그는 저녁에는 가수로서 아르바이트를 했고, 졸업후에도 한때는 유일한 돈벌이가 되기도 했다. 공식적으로 회사에 취직한 후에도 레스토랑 가수 아르바이트는 종종 했다.

2014년에 결혼하고 첫째 딸이 생겼을 때도 노래는 계속 불렀다. 둘째 아들이 태어나기 전에, 2017년에야 그 일을 그만두게 되었다. '아내를 도와야 하고, 아이들도 아빠와 저녁 시간을 보내며 살아야한다'고 미하일은 말한다. 가족에 대한 배려심이 우선이라고 생각하는 그는,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가장 소중하다.

낚시, 특히 겨울 낚시를 즐기는 것을 좋아하고 마침 아내도 같은 취향이라 함께 낚시하러 다닌다. 체호브에 계속 사는 아버지와 낚시를 갈 때면 부자가 많은 이야기를 나누는데 미사는 특히 아버지가 들려준 인생의 과거사를 좋아한다.

나이가 들수록 가족의 소중함을 더더욱 느끼게 된다는 그는, 부모님과 자주, 거의 매일 연락을 하고, 부모, 형의 가족과 함께 하는 가족모임 시간을 매우 좋아한다. 특히 아이들이 이런 시간을 즐기고 가족의 행복이란 걸 제대로 느낄 수 있는 것이 마음을 따뜻하게 해준다고 말하는 미사에게서 가족에 대한 애정이 느껴졌다.

최근에 그는 <사할린한인>유즈노사할린스크시 한인회의 임원중 하나로, 사회활동도 하고 있다. 이 단체가 설립할 때 (1년반전에 설립)는 그저 행사에만 참석했었는데 작년 9월에 처음 '라면'축제를 준비하면서 이 단체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가하게 되었다. 조직자들은 처음엔 그에게 축제 진행을 부탁했었는데 나중에 이 축제 준비과정이 그의 적극적인 활동 계기가 되었다. 올해 음력설 행사, 여성의 날 행사 등이 성공적으로 진행된 데에는 미사의 노고도 있다. 그는 사람들이 행사에서 시간을 즐겁게 보내도록 하는 데에 장인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미하일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보니 가벼우면서도 가볍지 않은 사람, 예의가 있는 사람, 생각 깊은 사람, 인간적이고 '씩씩하다'란 느낌을 준다는 인상을 받았다. 우 미하일의 행운과 성장을 빈다.

(배순신 기자)

이 모 저 모

코르사코브, 생태와 건강한 라이프스타일 축제 열려

일전에 코르사코브 시의 문화휴식공원이었던 곳은 창의적이고 배려심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생태 피크닉장이 되었다. 축제의 모토는 "지구의 건강은 각자 개인에게서 시작된다."라고 코르사코브시 구역 행정부 홍보실이 전했다.

이 소셜 프로젝트는 이미 2년째 운영되는 가운데 참가자 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 올해는 유즈노사할린스크와 돌린스크의 다양한 분야의 마스터들도 프로젝트에 참여했다.

페스티벌 개막식에서는 스튜디오 '소로카'의 선수들과 '럼블'단체의 브레이크 댄서들의 신나는 공연이 펼쳐졌다. 그 후 관객들은 다른 장인들을 만나러 갔다.

행사장은 여러 테마 존으로 나뉘어져, 각 부스터는 방문객들에게 흥미로운 볼거리를 제공했다. 행사 장소에서는 장난감, 보석류, 디자이너 꽃병, 사할린 허브로 만든 천연 양초 등 핸드메이드 제품을 구매할 수 있었다.

관객들은 길거리 게임과 보드 게임을 선택하기도 했고, 워크숍에 참여하는 관람객들도 있었다. 사용한 플라스틱 빨대를 활용해 사진 액자를 만드는 워크숍도 있었고, 아이들도 밝은 색과 장식을 더해 돌과 조개껍질로 공예품을 만들며 즐거워했다.

여름에는 꽃을 빼놓을 수 없기에 자원봉사자들이 다양한 식물로 화환을 짜는 마스터 클래스를 열었다.

에코피크닉 장의 한 구석에서는 자신과 몸에 대해 알아볼

수 있었다. 사람의 두뇌의 혈 활용법, 요가의 적절한 호흡 방법과 못에 서는 법 (못이 박힌 길을 걸어야 하는 것)을 실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

지역 식물로 만든 차와 빵도 제공되었다. 축제는 예술단체들의 공연으로 마무리되었다.

Фестиваль экологии и здорового образа жизни прошел в Корсакове

Городской парк культуры и отдыха в Корсакове превратился в экологический пикник, который привлёк творческих и заботливых людей. Девиз фестиваля гласил: «Здоровье планеты начинается с каждого из нас», сообщили в пресс-службе администрации Корсаковского городского округа.

Этот социальный проект уже работает второй год. Количество участников растёт: в этом году к проекту присоединились мастера разных направлений из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и Долинска.

На открытии фестиваля выступили спортсмены из студии «Сорока» и зажигательное выступление брейк-дансеров объединения «Рамбл». После зрители отправились знакомиться с другими мастерами.

Площадка была разделена на несколько тематических зон, каждая из которых предлагала что-то интересное для посетителей. Там можно было приобрести изделия ручной работы, такие как игрушки, украшения, дизайнерские вазы для цветов, а также натуральные свечи из сахалинских трав.

Одни решили поиграть в уличные и настольные игры, а другие приняли участие в мастер-классах. Например, из использованных пластиковых трубочек можно было сделать рамку для фотографий. Дети с удовольствием создавали поделки из камней и ракушек, добавляя в них яркие цвета и украшения.

Летом невозможно обойтись без цветов, поэтому

волонтеры провели мастер-класс по плетению венка из разных растений. В другой части экопикника можно было узнать себя и свое тело. Были представлены такие практики, как работа с энергетическими точками на голове человека, йога с упражнениями по правильному дыханию и взвешивание, когда нужно было пройти по дорожке, усеянной гвоздями.

Гостей праздника также угостили чаем из местных трав и выпечкой. Фестиваль завершился выступлениями творческих коллективов.

유즈노사할린스크, 네벨스코이의 길을 따라 "아무르 대탐사" 스타트

탐사 참가자들은 1852년 겐나지 네벨스코이 원정대 대장의 탐험길을 따르게 되는데 이들은 데-카스트리에 도착한 후 보트를 타고 불쇼이 키치 호수로 이동한다. 이후 아무르 강으로 내려가 남쪽 아무르 하구로 이동하여 네벨스코이 해협을 지나 알렉산드롭스크-사할린스키로 돌아온다. 이 여정은 총 20일이 소요되며, 탐험 준비에는 약 2년이 걸렸다고 유즈노사할린스크시 행정부 홍보실에서 전했다.

탐사는 지난 7월 15일 유즈노사할린스크에서 공식적으로 시작되었다. 네벨스코이 제독 이동 경로를 따르는 두 팀은 유즈노사할린스크에서 알렉산드롭스크-사할린스키까지 차로 이동했다. 탐험의 수로 이동은 7월 16일에 시작되었다.

러시아 지리학 협회 회원이자 사할린 낚시 및 여행 클럽의 회장인 막심 소로카에 따르면 '이번 탐사여행은 클럽 회원들의 일곱 번째 대규모 항해이며, 네벨스코이의 이동 경로를 따르는 두 번째 항해이다.

(8면에 계속)

사할린, 단일 민족의 날 개최

7월 17일은 러시아에서 단일 민족의 날로 기념한다. 이날은 러시아 민족들간 단결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날로서 올해는 러시아 민족 무형문화유산의 해에 즈음해 기념한다.

지난 16일(일) 사할린에서 처음으로 단일 민족의 날 행사를 개최한 가운데 축제 주최측은 어린이와 성인을 위해 10가지 주제별 마스터 클래스, 박람회 및 콘서트를 준비했다. 행사에는 주재 거의 모든 자치체 대표들이 참가했다.

이날 유즈노사할린스크 사할린민속창작센터 앞마당에서 열린 축제에는 러시아 블린, 한민족의 전, 부랴트의 부우우즈를 비롯해 다양한 음식을 시식할 수 있었다.

손님들은 러시아의 사모바르에서 장작불에 끓인 차도 대접받았다. 이날 러시아인, 북방소수민족 원주민, 부랴트인, 한인 등은 각각 자기 민족 문화를 소개했다.

행사는 여러 민족단체들이 참가한 가운데 한민족은 '사할린한인' 유즈노사할린스크시한인회(회장 천영근)가 대표했다. 이날 관객들은 동 단체 여성회원들이 만든 해물과전, 야채과전과 햄과전 - 3가지 종류의 과전을 맛 볼 수 있었다. 모든 시식 요리는 인기가 많았다.

한글쓰기 마스터클래스도 호기심을 끌었다. 다양한 민



속 무용, 전통 음악 연주, 노래로 이어진 공연 역시 관객들의 환호를 받았다. 예쁜 한복을 입은 '사할린 한인' 단체의 임원인 서 마리나는 가수 이선희의 노래 '인연'을 멋지게 불러 박수 갈채를 받았다.

좋은 시간을 보낸 방문객들은 아주 흡족해 했다.

(본사 기자)

(사진: '사할린한인' 유즈노사할린스크시한인회 제공)

사할린주, 74 건의 장 바이러스 감염 사례 등록

7월 10일부터 16일까지 사할린 주에서 74건의 엔테로바이러스 감염 사례가 발견되었다고 러시아 소비자권리보호감독청 사할린주관리국이 보도했다.

7일간 발생률은 236% 증가했으며, 이 바이러스는 3~6세 연령대에 주로 영향을 미치는 17세 미만 어린이에게서 보고되고 있다.

급성 호흡기 감염도 전 지역에서 증가했다. 지난 한주 동안 지표가 7.3% 증가했다.

유즈노사할린스크, 학교 건물 점검

유즈노사할린스크에서 8월 15일까지 특별 위원회가 32개 교육 기관과 2개 보충 교육 기관을 점검할 예정이다. 장애아를 위한 "나제즈다(희망)" 특수교육 학교는 가장 먼저 점검을 받은 학교 중 하나였다. 교육, 의료 및 보안 분야의 전문가들이 해당 건물이 필요한 요건을 충족하는지 평가했다. 위원회는 매일 3개 학교를 점검하며 건물 및 인프라의 기술적 상태, 학교 시설 및 장비의 안전성, 학습 및 활동을 위한 교실, 도서관, 운동장의 준비 상태 등을 확인한다. 또한 전문가가 위생 및 청결도 기준을 모니터링한다.

주지사, 자치체 지도자 비판

알레리 리마레코 주지사는 사할린 주 정부 회의에서 오하, 노글리키, 티몹스코예, 쿠릴스크 지역의 도로 보수 기한을 지키지 못한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 보수 작업은 8월 1일 까지 마쳐야 하는데 티몹스코예와 쿠릴스크 구역에서는 작업이 아예 시작되지 않았다.

사할린주에는 도로 총 5만 9천 평방미터 면적에 달하는 약 5천 건의 결함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작업에 대한 자금은 주 예산에서 지방 자치체에 적시에 지급되었다.

도로 보수 작업을 제때에 마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지방자치체 지도자들은 '보수 작업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신뢰있는 업체를 찾지 못했다', '현지에서 아스팔트공장이 제때에 생산을 못했다', '비가 오고 나쁜 날씨 때문에 작업을 하지 못했다'라고 하였지만 주지사는 '그런 핑계가 작업에 지장이 되지 않아야 한다'고 비판했다.

재외동포청, '2023 재외동포 청소년 모국연수' 실시

만 14~18세 재외동포 및 국내 청소년 1,208명 참가1차와 2차로 나눠 천안, 안동, 군산, 제주, 시흥, 공주, 목포, 포항 등지에서 진행

재외동포청(청장 이기철)은 '2023 재외동포 청소년 모국연수'를 7월 10일부터 8월 13일까지 두 차례로 나눠 실시한다고 7월 13일 밝혔다.

'재외동포 청소년 모국연수'는 재외동포 청소년들에게 모국의 사회·문화·역사 등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한민족 정체성을 높이고, 국내외 청소년 간 교류를 통해 상호 유대감을 심어주기 위해 마련됐다.

그 첫 시작은 1998년 '재외동포 대학생 모국순례연수사업'으로, 2001년부터는 '청소년·대학생 모국연수사업'으로 확대돼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그동안 재외동포재단이 시행해오다 올해부터는 새로 출범한 재외동포청이 주관, 한국 YMCA 전국연맹이 총괄 운영한다.

'안녕(Safe & Peace)'이란 주제로 열리는 올해 연수에는 만 14~18세의 재외동포 및 국내 청소년 1,208명이 참가한다.

1차 연수는 7월 10일부터 16일까지 천안, 안동, 군산, 제주 등지에서 진행되며, 재외동포 345명, 국내체육 재



7월 11일 천안 독립기념관에서 열린 '2023 재외동포 청소년 모국연수' 개최식 모습 (사진 재외동포청)

외동포 163명, 서포터즈 70명 등 총 588명이 참가했다.

2차 연수는 8월 7일부터 13일까지 시흥, 공주, 목포, 포항 등지에서 진행되며, 재외동포 380명, 국내체육 재외동포 160명, 서포터즈 80명 등 총 620명이 참가한다.

연수 참가자들은 ▲천안 독립기념관에서의 개최식 ▲안동 하회탈놀이, 전통시장 방문, 수원 화성 견학 등 지역 탐방 ▲도시숲체험, 경복궁·한옥마을 견학 등 서울 도심 탐방 ▲K-POP 공연, 홈스테이 등 국내 청소년들과 합

계 하는 소통시간 등을 통해 한국문화를 체험하고 모국에 대한 이해를 넓혀 나갈 예정이다.

7월 11일 열린 개최식에 참석한 최영한 재외동포청 차장은 "재외동포청은 재외동포 청소년들이 모국에 대한 정체성을 찾고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이번 연수를 통해 많은 재외동포 청소년들이 한인으로서 정체성을 함양하고 모국과의 유대감을 강화하고 이해해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허진원의 <사랑하기 좋은 날>

산문山門에 기대어 / 송수권

누이야
가을산山 그리매에 빠진 눈썹 두어 날을
지금도 살아서 보는가
정정淨淨한 눈물 돌로 눌러 죽이고
그 눈물 끝을 따라가면
즈믄밤의 강이 일어서던 것을
그 강물 깊이깊이 가라앉은 고뇌苦惱의 말씀들
돌로 살아서 반짝여 오던 것을
더러는 물속에서 튀는 물고기 같이
살아 오던 것을
그리고 산다山茶花 한 가지 꺾어 스스럼없이
건네이던 것을

누이야 지금도 살아서 보는가
가을산 그리매에 빠져 떠돌던, 그 눈썹 두어 날을 기러기가
강물에 부리고 가는 것을
내 한 잔盞은 마시고 한 잔盞은 비워 두고
더러는 앞세에 살아서 튀는 물방울같이
그렇게 만나는 것을

누이야 아는가
가을산 그리매에 빠져 떠돌던
눈썹 두어 날이
지금 이 못물 속에 비쳐 음을

"죽음의 그림자가 짙은 한 주였습니다. 장맛비가 그칠 줄 모르더니 결국 비 피해 소식들로 이어졌습니다. 올해 피해는 더욱 이만저만하지 않네요. 한국은 지금 전국 이곳저곳에서 수마에 휩쓸린 죽음에 관한 소식들로 가득합니다. 열흘 남짓 뒤면 언제 그랬냐는 듯 장마는 물러나겠지요. 비가 그치면 늘 그렇듯 다들 단합하여 도로로 쏟아졌던 토사물들을 치워내겠지요. 성금도 걷을 테고.

스무 해가 뭐야, 스물 일고여덟 해 전 즈음야말로 군복무 시절, 쫓따 구였으니 일병 쫓이었던 것 같은데, 그 때 제가 수재민 피해 작업에 동원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철원 와수리 일대가 빗물에 잠겼다가 며칠 뒤 다시 원상태로 빠졌던 건데, 군부대 인근 학교며 식당이며 도대체 어디 서부터 뭘 도와드려야 할 지 막막했던 기억입니다. 팔 걷어 부치고 뭘든 열심히 도우려고 했던 기억입니다만, 지금도 그렇지요. 저는 노동이라면 취약이거든요. 잘 못해요, 일을. 그러니 거리 곳곳 진흙 더미에 쌓인 물건들을 보는 것 만으로도 힘이 빠졌던 기억입니다. 길은 왜 그렇게 미끄럽던지. 자꾸 미끄러지고 자빠지기 바쁘니 고참한테 호되게 깨졌던 기억이 나네요.

매년 오는 장마치고 올해는 너무 맵네요. 늘 그렇듯이 결국 거리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원래의 형태를 되찾을 겁니다. 사람들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바른 자세로 그 길을 걸을 테고. 우리가 사는 삶의 속도는 원래의 속도만큼이나 자본을 등에 지고 기우뚱 기우뚱 절룩절룩 잘도 나아가겠지요.

새삼 그 때 제 군대 후임의 슬픈 소식이 떠올라셔요. 이렇게 비가 많이 퍼붓는 날이었던 것 같은데, 그 후임병의 누이가 죽었다는 부고 소식을, 제가 전해야만 했던 기억이 스쳐 지나갑니다. 서둘러 휴가증이 나와야 하는데, 어찌된 일인지 날이 어두워질 때까지 휴가증이 나오지 않아 발을 동동거리던 그 후임병의 슬픔이 너무 깊어 보여, 아무런 말도 없이 나란히 앉아 담배만 빼꼼빼꼼 피웠던 기억입니다. 이번 장마로 인해 명운을 달리한 고인들의 명복을 빕니다. 아울러 슬픔의 시간을 견고 있을 유가족, 지인 분들께 위로의 말씀 올립니다."

서울에서 허진원 작가

유즈노사할린스크, 8월 1일부터 무제한 탑승 패스 시스템 도입

유즈노사할린스크에서는 교통 개혁의 일환으로 8월 1일부터 시민이 무제한 버스 탑승 패스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탑승 패스는 달네예, 노위알렉산드롭스크, 흐리스토포롭카에서 들어오는 지상 대중 교통 및 철도 버스에서 모두 운영될 것이라고 유즈노사할린스크 행정부에서 전했다.

요금은 앱, 온라인 banking 시스템을 통해 사할린 거주자의 유효한 통합 카드로 발급받을 수 있으며, 교통 허브에서 선불로 결제할 수도 있다. 무제한 패스 비용은 하루 104 루블리, 일주일 620 루블리, 한 달 1,800 루블리이다.



О диаспоре, и не только

ЦБ выпустил трехрублевую монету с Виктором Цоем

Банк России 18 июля 2023 года выпускает в обращение памятную серебряную монету номиналом 3 рубля «Творчество Виктора Цоя».

Советский рок-музыкант, основатель и солист группы «Кино» Виктор Цой был кумиром своего времени, а его песни стали символом эпохи перестройки. Цой также известен работами в кино: в фильме «Асса» он сыграл самого себя, а после главной роли в картине «Игла» журнал «Советский экран» признал его актером года. Песни Виктора Цоя слушают до сих пор, их знает уже не одно поколение.

Серебряная монета номиналом 3 рубля (масса драгоценного металла в чистоте — 31,1 г, проба сплава — 925) имеет форму круга диаметром 39,0 мм.

Тираж монеты — 5,0 тыс. штук.

Выпускаемая монета является законным средством наличного платежа на территории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и обязательна к приему по номиналу во все виды платежей без ограничений, сообщается в пресс-релизе пресс-службы Банка России.

На практике такие монеты пользуются большой популярностью среди коллекционеров и могут стоить существенно дороже.



Плюсы и минусы иностранной рабочей силы

Сеул, 17 июля – ИА РУСКОР

Прошло 30 лет с тех пор, как Южная Корея всерьез начала нанимать иностранных работников с введением системы производственной стажировки в 1993 году, которая была заменена системой выдачи разрешений на трудоустройство в 2004 году. Но хаос в этой области все еще сохраняется.

По данным малых и средних предприятий (МСП), иностранные работники, которые въезжают в страну по непрофессиональной рабочей визе (Е9) с ограничениями на смену места работы, все чаще используют систему не по назначению.

Они используют всевозможные уловки, чтобы уйти на другие рабочие места, которые соответствуют их вкусам. Согласно системе разрешений на трудоустройство, иностранные работники с визами Е9, которые в основном работают в малых и средних производственных компаниях, должны работать в течение трех лет, но они редко остаются на своих рабочих местах до конца этого периода.

Согласно исследованию статуса иммигрантов и занятости министерства юстиции и управления статистики Кореи (2020), 42,8 процента иностранных работников сменили место работы в течение одного года после въезда в Южную Корею. Доля иностранных работников, которые не отработали шесть месяцев, выросла с 17,8 процента в 2017 году до 22,5 процента в 2020 году. Число нелегальных брокеров также растет, они собирают комиссионные за организацию новых рабочих мест и поощряют это.

«Южнокорейские МСП беспомощны перед абсурдными требованиями иностранных работников уйти на другие рабочие места», — сказал Ли Кю Ен, исследователь Корейского института труда.

Одним из наиболее острых конфликтов между иностранными работниками и южнокорейскими работодателями является вопрос о требовании иностранных работников сменить место работы и уйти в другие компании. По сути, это перетягивание каната между иностранными рабочими, которые хотят сменить место работы, и южнокорейскими работодателями, которые не могут принять их требования. В принципе, иностранные работники, которые въезжают в Южную Корею по визе Е9, должны продолжать работать в своих южнокорейских компаниях, с которыми они изначально подписали трудовые контракты. Они ограничены подачей заявления о смене места работы три раза в течение трех лет с даты их въезда в страну. И они должны делать это только в том случае, если их работодатели делают что-то не так, например, не выплачивают заработную плату или подвергаются несправедливому обращению.

(Окончание на 5-ой странице)

Соратники Героя Советского Союза разведчика-нелегала Евгения Ивановича Кима считают чудом одно то, что его имя стало известно

Напоминаем читателям: по просьбе "Российской газеты" Служба внешней разведки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впервые рассекретила досье трех разведчиков-нелегалов. Материал о полковнике Борисе Симоновиче Прибыткове в "РГ" — Неделя опубликован 3 мая 2023 года. Пришел черед поведать и о гордости отечественной нелегальной разведки, Герое Советского Союза Евгении Ивановиче Киме (1932-1998).

Он не должен был стать разведчиком и уж тем более советским нелегалом. Он вообще не должен был оказаться в нашей стране. Он начинал свою жизнь в "особых условиях" с такого круглого нуля, что о головокружительной карьере, им самим и сделанной, нельзя было даже мечтать. Он добывал секреты, обходя немислимые кордоны. Он стал, редчайшая честь, Героем Советского Союза...

И человеком, чей семейный очаг был разрушен нескончаемо долгим его отсутствием. И отцом трагически погибшего единственного сына. И великим нелегалом, преодолевшим все, что только можно преодолеть там. И закончившим жизнь под шальными колесами случайного автомобиля здесь, в нескольких шагах от родного московского дома.

Все это о полковнике-нелегале Евгении Ивановиче Киме. Триумфы и трагедии одного из символов нелегальной разведки слились в клубок из оборванных нитей, не имеющих ни конца, ни начала.

Приходится опускать немислимые, лишь нескольким людям разведки известные, подробности его оперативной работы. Как и некоторые важные детали биографии типа страны, где десятилетиями действовал советский нелегал.

Ким Ен Чер, это его настоящее имя, седьмой и младший ребенок в большой крестьянской корейской семье. Отец тянул, как мог, шестерых сыновей и дочку, но рано умер. Из нищеты детей вытаскивала мама, с которой наш Герой, несмотря ни на какие разлуки, сохранял трогательные отношения до конца ее дней. В довоенные годы в Корею для детей бедняков образование заканчивалось на начальной школе. Однако Ким Ен Чер отличался не только прилежанием, чем в его стране было ничего не удивить, но и явными способностями, а в изучении языков — и талантом. Да еще губкой впитывал все то хорошее, что веками развивалось в древней культуре Юго-Восточной Азии.

В 1942 году семья оказалась на Сахалине. Жили в поселке, переименованном в 1947 году в город Шахтерск. После Второй мировой принадлежал он уже СССР. Закончил семь классов, что для ребят из семей откровенно бедных считалось тогда уже достижением, и пошел работать техником: есть-то надо. Но учеба тянула, занимался вечерами сам, без учителей, и эти его сверхусилия заметили, вернули в школу — сразу в девятый. Кима, признанного лучшим учеником, особенно тянуло к наукам гуманитарным. Школьником, в 1953-м, принял советское гражданство, вступил в комсомол.

Как отличника-активиста Ким Ен Чер отправили в Москву в Центральную комсомольскую школу. Но столица не понравилась, оттолкнула. Что ж, бывает. И решил Ким увидеть прекрасный город-колыбель трех революций Ленинград. Сам не понял почему, но дешевенький билет на сидячую боковушку в плацкарте взял только в один конец. Может, уже тогда пробудилось в будущем нелегале острое чутье? И возможно, совсем случайно попало к нему на глаза объявление о приеме на факультет восточных языков Ленинградского университета? Не подозревая, что поступает в престижнейший вуз, где на место претендовало 22 человека, отлично сдал все экзамены, особо блеснув знаниями сложного языка, практикуемого в Азии.

Но кроме учебы, где почти не было ему равных, требовалось и еще одно, очень важно-банальное, что давало возможность существовать, — деньги. Конечно, немного помогла стипендия в 290 рз, жил бесплатно в общежитии. А выручала отнюдь не гуманитарная ночная погрузка-разгрузка вагонов. На хлеб с чаем, иногда и с маслом, хватало. Потом подрабатывал переводчи-



Герой Советского Союза Евгений Иванович Ким прожил три десятилетия под чужим именем. / СВР

ком в институте зоологии, где неожиданно увлекся и этой наукой. Да так, что поступил на заочку факультета биологии университета.

Нелегальная разведка — это именно "один в поле воин". Нужно, чтобы вас любили все и всюду.

Редкий случай — одновременно учился на двух факультетах, очном и заочном. И оба закончил отличником. Предложение о поступлении в аспирантуру востфака выдвинулось логичным продолжением мечты о научной карьере. Но...

Читающие материалы о разведке уже догадываются, что последовало за этим "но". Может, его заметили еще в 1957-м в штабе Всемирного фестиваля молодежи и студентов, где он впервые публично продемонстрировал навыки работы с языком и с иностранцами? Как бы то ни было, в 1960-м Кима пригласили в разведку, причем нелегальную. Интенсивная учеба по 12, а то и по 14 часов в день один на один с "тренером" продолжалась три года. Обычно и этого бывает мало. Но не в случае с Ким Ен Чером. Риску предположить, что удалось "сэкономить" на языке, в совершенстве и естественным путем освоенном в детстве.

Вот как об этом пишется в официально рассекреченном документе ("...Занимался освоением новых для себя профессий по прикрытию, изучал различные спецдисциплины и иностранные языки. Прошел подготовку по страноведению, приобрел навыки в области оперативной психологии, конспирации и обеспечения безопасности. Весьма интересной была дисциплина, касающаяся организации связи. Он освоил радиоаппаратуру, научился приему и передаче радиосообщений, пользованию аппаратурой ближней связи, проведению тайниковых операций и использованию сигнализации, работе с шифрами. Тренировался выявлять наружное наблюдение. Особое внимание при этом Е.И. Ким уделял спорту, занимался борьбой самбо, лыжами и плаванием". Набор — полный!

Неожиданным может показаться лишь язык, усердно изучаемый в тот период, — испанский. Для его полного совершенствования Ким Ен Чер два года прожил в стране, где этот язык был основным. Выскажу предположение: легенда, по которой в дальнейшем предстояло жить нелегалу, была исключительно непроста. Она предполагала, что в "особых условиях" Ким проработает три, ну четыре года и вернется домой к жене, только родившемуся сыну и в родное управление внешней разведки.

В 1966-м советское торговое судно высадило его в порту одной страны. И началась работа. Стараниями нелегала пошла она исключительно успешно. Настолько, что прерывать ее, ведущую для обеспечения безопасности СССР в неимоверно тяжелой обстановке, было бы нецелесообразно. Командировку продлили до десяти лет. И сразу начали готовить жену Кима, которая после окончания обучения должна была к нему присоединиться, деля все тяготы (и радости тоже) совместной боевой работы и семейной жизни.

Тут позволю задать себе и только себе наивный вопрос: а как бы смогла жить, не привлекая внимания, в сугубо азиатской стране простая советская женщина с типично славянской внешностью? Наверняка все было предусмотрено в сложнейшей легенде, которую, увы, так и не пришлось опробовать. Супруга, используя терминологию разведки, "сошла с подготовки". Языки ей ну никак не давались.

Отсутствие лингвистических способностей обернулось чисто семейной, однако трагедией. Два любящих человека были обречены на долгое расставание. Брак угасал. Хорошо, родился сын, призванный радовать родителей. Командировка нелегала, принявшего в 1978 году по советским официальным документам имя Евгения Ивановича Кима, затянулась почти на тридцать лет. И продлилась бы даже дольше...

Нелегал удивительно быстро сроднился со страной пребывания. Вот уж кто никогда не был для нее чужаком. Освоился. Закрепился. Приступил к выполнению задач в стране чувствительной, порой непредсказуемой, очень для нас важной. Пошли вербовки. Он получил постоянный доступ к ценнейшей разведывательной информации. О том, каких карьерных высот он там добился, свидетельствует удивительнейший факт. Был Ким на таком вершине, что однажды столкнулся буквально лицом к лицу со своим бывшим начальником Александром Шелепиным и его переводчиком — сокурсником по университету. Экс-председателю КГБ тут бы не подать виду, пройти мимо, не зря же учился несколько лет у своих подчиненных, а он бросился обниматься.

(Продолжение следует)
Николай Долгополов (Российская газета. Неделя. Федеральный выпуск №106(9051))

О Корее и корейцах

РК, США и Япония провели противоракетные учения

16 июля ВМС РК, США и Япония провели совместные противоракетные учения в международных водах Восточного моря. По данным штаба Военно-морских сил РК, в них приняли участие три эсминца, оснащенных системой Aegis. Это, южнокорейский эсминец «Юльгюк Ли И», американский John Finn и японский «Майя». В ходе учений отрабатывались обнаружение и отслеживание баллистической ракеты, а также обмен соответствующей информацией. Как отмечается в сообщении штаба ВМС, учения помогли улучшить возможности южнокорейских вооруженных сил по реагированию на баллистические ракеты и активизировать сотрудничество в области безопасности между РК, США и Японией. Это были четвертые по счету трехсторонние учения с момента прихода к власти администрации Юн Сок Ёля. Ранее на прошлой неделе РК и США провели совместные воздушные учения с участием американского стратегического бомбардировщика B-52H.

На экспортных продуктах питания появится логотип K-FOOD

С 12 июля на обработанных продуктах питания и сельскохозяйственной продукции южнокорейского производства, которая направляется на экспорт, появится логотип K-FOOD. Об этом сообщили в министерстве продовольствия, сельского и лесного хозяйства. На упаковках свежих продуктов питания обязательно также указание РК в качестве страны производителя. Логотип K-FOOD зарегистрирован в 44-х странах мира, включая 27 стран Европы, Японию, Тайвань, Гонконг, Филиппины, Австралию, Сингапур, Монголию, Индию и другие. Компании, желающие использовать логотип, должны оформить заявку в Корейской корпорации по распространению сельскохозяйственной и морской продукции. Разрешение выдается на три года с возможностью продления. Данная мера нацелена на повышение узнаваемости бренда южнокорейских товаров в мире.

В РК растёт число иностранных рабочих

В РК растёт число иностранных рабочих в различных отраслях экономики. Как сообщили в Корейской ассоциации взаимопомощи строителей, по состоянию на конец марта, на строительных площадках страны работали в общей сложности 109.865 рабочих иностранного происхождения, что составляет 14,8% всех строителей в стране. Фактическое количество иностранцев на строительных площадках намного больше, поскольку статистика не учитывает нелегалов. По данным министерства морского и рыбного хозяйства РК, в конце прошлого года на южнокорейских рыболовных судах работали в общей сложности 60.148 человек, в том числе, 28.281 иностранец, или 47% от общего количества рыбаков. Это на 3,5% больше, чем в предыдущем году.

Экспорт автомобилей из РК достиг в первом полугодии нового максимума

По данным министерства промышленности, торговли и энергетики, за период с января по июнь текущего года экспорт автомобилей из РК составил 35 млрд 700 млн долларов, что на 46,6% больше, чем годом ранее. Это самый высокий показатель за первое полугодие в экономической истории страны. В натуральном выражении экспорт увеличился на 32,6% по сравнению с прошлым годом, составив 1 млн 420 тыс. автомобилей. Экспорт экологически чистых автомобилей составил 12 млрд 400 млн долларов, увеличившись на 70,4% по сравнению с аналогичным периодом прошлого года. Каждый четвертый южнокорейский автомобиль, проданный на мировом рынке, был экологически чистым. Производство автомобилей увеличилось на 23,5% по сравнению с прошлым годом, составив 2 млн 190 тыс. единиц.

У группы BLACKPINK более 90 млн подписчиков на YouTube

Южнокорейская женская группа BLACKPINK собрала более 90 млн подписчиков на YouTube, закрепив за собой позицию самой популярной музыкальной группы в глобальном сервисе обмена видео. Как сообщило продюсерское агентство YG Entertainment, 90-миллионный рубеж превышен в 5:36 утра 17 июля, через семь лет и один месяц после создания канала. В июле 2020 года группа вошла в пятерку самых популярных исполнителей на YouTube. В сентябре 2021 года она поднялась на первое место, обогнав мировых поп-звезд, таких как Ариана Гранде, Эминем, Эд Ширан и Джастин Бибер. BLACKPINK потребовалось меньше года, чтобы добавить ещё 10 млн подписчиков после того, как в сентябре прошлого года была преодолена 80-миллионная отметка. Группа собрала в общей сложности 32 млрд 200 млн просмотров своих видео на официальном канале YouTube. Среди них 43 музыкальных видеоклипа, каждый из которых набрал более 100 млн просмотров.

(RKI)

Власти Южной Кореи подверглись критике за трагедию в "тоннеле смерти"

Несмотря на ожидаемый характер ливней и наводнений в Южной Кореи снова не обошлось без смертей и масштабного ущерба. Власти страны подверглись сильной критике за трагедию в "тоннеле смерти" в Осоне, где погибли и пропали без вести 14 человек. Как считают многие, всё это можно было предотвратить.

Сезон муссонных дождей "чанма" на Корейском полуострове является, пожалуй, самым худшим временем года – примерно с конца июня до середины июля-начала августа идут мощные ливни, что сопровождается достаточно жаркой погодой. В это время выпадает до 70 процентов от среднегодовой нормы осадков, что провоцирует наводнения, селевые потоки, оползни, приводя к масштабному ущербу и гибели людей. Каждый год власти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готовятся к этому испытанию ударом стихии, но все равно, к сожалению, без трагедий не обходится.

Главным трагическим символом нынешнего периода "чанма" в Южной Кореи стал подземный проезд Кунпхён-2 длиной чуть более 400 м в районе города Осон провинции Северный Чхунчхон, что географически в самом центре страны. Утром в субботу 15 июля, когда на подземной трассе было достаточно оживленное движение, произошло обрушение берега у протекавшей неподалеку реки Михо, в результате чего часть потока, который значительно увеличился из-за дождей, устремился в том числе на подземную дорогу. В течение двух-трех минут в проезд Кунпхён-2 прибыло 60 тысяч тонн воды, затопив в общей сложности 15 транспортных средств, включая рейсовый автобус. Некоторые люди побросали автомобили и успели выскочить из стремительно превращавшихся в смертельные ловушки машин, но часть людей так и осталась внутри, как его теперь называют, "тоннеля смерти".

Спасатели достаточно быстро прибыли на место происшествия, но было очевидно, что официально названная поисково-спасательная операция будет заключаться только в обнаружении тел погибших. След за первым трупом, который был найден достаточно быстро, за сутки было обнаружено еще восемь тел погибших, доведя общий счетчик подтвержденных жертв "тоннеля смерти" до девяти. В полиции же лежат заявления на еще пятерых пропавших без вести. Не исключено, что были и те, про кого никто не заявил. Как опасаются эксперты, все те пятеро, которые до сих пор считаются пропавшими без вести, скорее всего перейдут в разряд погибших.

Многие тут же задались вопросом, почему такое могло произойти. Как указывают эксперты, избежать

трагедии можно было простым способом, перекрыв движение по подземной трассе и окрестным магистралям. Даже если обрушение берега реки Михо было сложно спрогнозировать, но было очевидно, что она может скоро начать разливаться, так как уровень воды из-за непрекращающихся дождей продолжал повышаться. Некоторые службы предупредили местные власти о приближении воды к опасной отметке, но быстрого решения о закрытии дорог принято не было.

По местным телеканалам сейчас широко транслируется видеозапись с "черного ящика" одного из автомобилей, который буквально в последний момент сумел выскочить из "тоннеля смерти". На видеоролике видно, что при заезде в тоннель вода еще течет по дороге, но стремительно прибывает. На выезде же автомобиль уже почти плыл – так быстро поднялась вода. "Когда я посмотрел в зеркало заднего вида, то понял, что едва избежал смерти. После меня уже никто не выехал, а вода почти полностью заполнила пространство тоннеля, сделав движение невозможным", – цитируют журналисты слова водителя спасшегося автомобиля.

Сейчас можно слышать много критики в адрес как центральных, так и местных властей страны в связи с большим масштабом трагедии. Под огонь народного гнева попал и президент РК Юн Сок Ёль, который в день трагедии в "тоннеле смерти" решил посетить Украину, до этого был с визитом на саммите НАТО в Вильнюсе, а потом и в Польше. Его помощники оправдываются, говоря, что присутствие президента в стране вряд ли что-то изменило бы, с чем согласны далеко не все. Снова "отметилась" и его супруга Ким Гон Хи, которая неизменно сопровождает мужа во всех зарубежных турне. Сообщения литовских СМИ о том, что Ким во время массовых наводнений в Корею устроила "шопинг-тур" по Вильнюсу, вызвало критику со стороны оппозиции и значительной части общественности. Впрочем, есть и те, кто считает, что жена президента в свободное от официальной программы время имеет право походить по магазинам, покупая что-либо за собственные деньги.

В любом случае в настоящий момент в Южной Кореи из-за удара стихии сложилась непростая ситуация. В самых разных районах страны зафиксированы разрушения объектов жилой и транспортной инфраструктуры, перекрыто движение по значительной части автомобильных магистралей. Движение поездов по железным дорогам также ведется в ограниченном режиме.

Олег Кирьянов (Сеул, РК)

Плюсы и минусы иностранной рабочей силы

(Окончание. Начало на 4-ой странице)

Однако существует множество случаев, когда иностранные работники прямо требуют сменить работу, чтобы перейти на более комфортные рабочие места с лучшей оплатой и льготами. Они обмениваются информацией через социальные сети и следуют рекомендациям брокеров, прежде чем перейти в другие компании. Эксперты отмечают, что все больше и больше иностранных работников фактически не заботятся о системе выдачи разрешений на трудоустройство, которая была введена в 2004 году для замены системы производственной стажировки и действует уже 20 лет.

Причина, по которой иностранным работникам нельзя запретить менять место работы, заключается в том, что действующая система выдачи разрешений на трудоустройство не имеет механизма для управления иностранными работниками после их въезда в Южную Корею. Южнокорейские работодатели говорят, что им некому помочь, когда у них возникают проблемы с иностранными работниками, которые пытаются расторгнуть их контракты.

Еще одна проблема заключается в том, что не существует нормативных актов, предусматривающих наказание иностранных работников, которые создают проблемы, такие как частые задержки или отсутствие без предупреждения. В результате число нелегальных иммигрантов продолжает расти. До тех пор, пока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е органы не поймут их и не вынудят покинуть Южную Корею, иностранные работники могут работать там, где захотят, после окончания трехлетнего периода пребывания, установленного системой разрешений на трудоустройство. Когда они вынуждены покинуть страну, они даже получают выходное пособие от своих компаний, которые они покинули без разрешения. «Меня раздражает, что я вынужден выплачивать даже выходное пособие нелегальным иммигрантам», — сказал глава южнокорейской компании.

По состоянию на апрель этого года, 278 363 иностранных работника имеют визы E9 в Южной Кореи.

Ожидается, что визовая квота E9 увеличится из-за спроса со стороны южнокорейской обрабатывающей промышленности, которой не хватает рабочей силы, поэтому необходимо срочно перестроить систему. «Вместо системы разрешений на работу, которая позволяет иностранным работникам свободно выбирать работу, как корейцам, нам нужна дополнительная мера, соответствующая целям системы разрешений на трудоустройство, которая ограничивает смену работы иностранными работниками на определенный период времени с учетом потребностей южнокорейских компаний», — сказал Ли Тхэ Хи, профессор университета Тэгу Хаани и бывший глава управления занятости и труда Тэгу.

Южнокорейские МСП настаивают на том, чтобы были введены гораздо более строгие ограничения на смену места работы иностранными работниками. «Учитывая реалии компаний, которые остро нуждаются в квалифицированных работниках, не говоря уже о простой работе, необходимо срочно ужесточить стандарты, чтобы трудящимся-мигрантам не разрешалось покидать свои первоначальные рабочие места в течение как минимум одного-двух лет после въезда в Южную Корею», — сказал Ли Мен Ро, глава отдела кадровой политики Коре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МСП.

Также раздаются голоса за принудительный отъезд тех, кто нарушает свои трудовые контракты и начинает необоснованно менять работу. Согласно недавнему опросу 500 МСП, проведенному Федерацией корейских торгово-промышленных палат, 38,2 процента респондентов заявили, что иностранных работников следует заставить покинуть Южную Корею, когда они проявляют недобросовестное поведение, например, замедляют работу, требуя уйти в другие компании, даже если их работодатели не виноваты. Кроме того, 26,8 процента заявили, что такие иностранные работники должны потерять некоторые баллы в своих оценках, когда они попытаются снова вернуться в Южную Корею в качестве иностранных работников.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раскритиковал бездействие четырех глав районов в вопросе организации ремонта дорог

В ходе заседания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губернатор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назвал недопустимым срыв сроков текущего ремонта дорог в Охинском, Ногликском, Тымовском и Курильском районах. В двух последних к работе еще не приступили, хотя завершить их должны до 1 августа.

Весной глава региона поручил провести текущий ямочный ремонт на юге острова до 1 июля, на севере и Курилах – до 1 августа. Всего в области было выявлено почти 5 тысяч дефектов площадью 59 тысяч квадратных метров. Финансирование на выполнение этих работ было своевременно доведено из областного бюджета на уровень муниципалитетов.

– Считаю такую ситуацию не только свидетельством управленческих ошибок на местах, но и проявлением неуважения к жителям. Сейчас, в разгар лета, люди как никогда остро обращают внимание на состояние дорог. Именно поэтому их необходимо было в кратчайшие сроки привести в порядок после зимнего сезона. И деньги на это у муниципалитетов были! Вот уже третий год подряд Правительств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направляет основной объем средств «дорожных» денег именно районам. Ведь логично, что именно там, где живут люди, где интенсивней трафик, дороги нужно ремонтировать в первую очередь, – подчеркнул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Так в Охинском районе выявлено 222 дефекта дорожного полотна площадью более 6300 метров, устранено лишь 29 дефектов. По словам главы муниципалитета Евгения Михлика, есть риск, что закончить ремонт в установленный срок не успеют. В Ногликском районе выявлено 18 дефектов общей площадью 384 квадратных метра. Устранено менее половины. Глава муниципалитета Сергей Камелин пояснил, что задержались с выполнением работ из-за плохих погодных условий. При этом муниципалитет готов ускориться и наверстать упущенное время.

Самая негативная ситуация в Тымовском и Курильском районах. В Тымовском выявлено 117 дефектов, в Курильском – 48. В обоих муниципалитетах к работам еще не приступили. В одном случае причиной стал выбор недобросовестного подрядчика, в другой – запоздалое начало работы асфальтобетонного завода.

– Никакой речи о переносе срока окончания ремонта быть не может. Всем главам были поставлены максимально четкие цели. И практически все смогли их достичь. Лишь четыре мэра не справились с задачей – кто-то не смог подобрать надежного подрядчика, кто-то на месте организовать процесс, кому-то якобы помешала погода. Я считаю такое отношение к работе недопустимым. И готов, если главы не выправят своего отношения, объявлять им недоверие. Из-за плохой организации на местах не должны страдать интересы людей, – отметил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Новый репетиционный зал для Сахалинской филармонии открыли в областном центре

Новый репетиционный зал площадью более 500 квадратных метров, оснащенный современным оборудованием и передовой акустикой, открылся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К репетициям в новом здании на улице Ленина приступили музыканты и вокалисты. С большим событием артистов областной филармонии поздравил губернатор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Чтобы обеспечить комфорт для репетиций музыкантов и вокалистов, при строительстве использовали передовые технологии, в частности звукоизоляционную каркасную облицовку стен, создав среду, где звук не проникает ни снизу, ни сверху. Помещения оснащены всем необходимым оборудованием, в том числе профессиональной звукозаписывающей аппаратурой. Теперь здесь занимаются не только артисты филармонии, участники «Академии эстрады», но и сторонние коллективы, которые раньше репетировали в приспособленных помещениях учреждения культуры.

– Бывали моменты, когда мы репетировали в практически соседней с администрацией филармонии комнате. А сейчас я просто в восторге. Все получилось отлично, прекрасные условия, – поделился баянист Олег Сальников.

На торжественном открытии артистам презентовали и проект строительства первого концертного зала для Сахалинской филармонии, а также дополнительных репетиционных помещений для коллективов. Концертный зал будет соответствовать всем мировым стандартам и станет жемчужиной культурной жизни региона. Строительство планируется начать в конце этого года. Зал будет рассчитан на 1000 посадочных мест. Весь комплекс, включая сопутствующие технические помещения, будет занимать около 6500 квадратных метров.

– Этот проект является важным шагом в развитии культурной инфраструктуры нашего региона. Филармонический зал с современной акустикой и достаточным количеством посадочных мест позволит проводить высококлассные концерты и мероприятия, привлекать талантливых музыкантов и артистов, а также удовлетворить потребности наших жителей в культурных мероприятиях. Это будет не только место для музыкальных высту-

плений, но и центр, где будут проводиться культурные и образовательные программы. Я уверен, что филармония станет гордостью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и привлечет внимание не только нашего населения, но и гостей из других регионов. Мы будем следить за ходом строительства и с нетерпением ждать открытия этого замечательного объекта, – отметил губернатор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 Открытие репетиционного зала и строительство первого концертного зала крайне важные события для культурной жизни нашего региона. Это не только дает мощный импульс для развития музыкального искусства, но и создает условия для профессиональной подготовки и выступлений наших талантливых музыкантов, – подчеркнула министр культуры и архивного дел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Нонна Лаврик.

Директор Сахалинской филармонии Илья Александров поблагодарил всех, кто принимал участие в создании новых залов учреждения и грядущих проектов – архитекторов, строителей, спонсоров.

– Мы очень рады открытию репетиционного зала для музыкантов филармонии. Это долгожданное событие, которое позволит нам значительно улучшить условия работы и подготовки наших талантливых музыкантов. А будущий концертный зал позволит нам предложить жителям и гостям качественные концертные программы и мероприятия, которые будут соответствовать высоким стандартам филармонического искусства, – отметил Илья Александров.

Напомним, организовать новые площадки для артистов весной этого года поручил губернатор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В мае комфортный зал для репетиций получили сахалинские хореографические коллективы. В кратчайшие сроки для них отремонтировали просторное помещение на улице Есенина. Раньше у хореографических коллективов не было собственного дома. Танцоры оттачивали мастерство на разных площадках учреждений культуры. Теперь все репетиции проводятся в одном удобном зале. Там же занимаются постановкой хореографических номеров для «Академии эстрады», участники которой проходят обучение под руководством Ларисы Долиной и педагогов ее музыкальной академии. Соглашение о сотрудничестве с народной артисткой России, которое предполагает долгосрочную совместную работу по поиску и обучению талантливых артистов региона, в начале этого года подписал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ь станет пилотным регионом, где заработает новая служба помощи «Дети в семье»

О создании новой службы помощи семьям, находящимся в трудной жизненной ситуации, договорились губернатор островного региона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и Уполномоченный при Президенте РФ по правам ребенка Мария Львова-Белова. Двусторонняя встреча состоялась 17 июля в стенах областного правительства.

– Власти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слышат и чувствуют проблемы людей, подходят к их решению неформально. Мы видим, что с детьми в островных учреждениях работают хорошие команды, уделяется внимание медицине, образованию, уходу за детьми. Но мы понимаем, что самое дорогое у ребенка – это семья. Семья важнее даже самого замечательного детского дома. В связи с этим в рамках поручения Президента РФ мы создаем службу «Дети в семье». Она будет заниматься адресной помощью семьям, которым еще можно помочь, у которых есть реабилитационный потенциал воспитывать ребенка. Там, где такой возможности уже нет, будем работать над поиском и сопровождением замещающих семей.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ь станет одним из пилотных регионов, где мы нарабатываем необходимый опыт. Уверена, что все получится, – отметила Мария Львова-Белова.

– Некоторые ситуации требуют человекоцентричного подхода, нестандартного решения для конкретной семьи. Их нужно решать неформально и быстро, чтобы было сделано все для защиты интересов ребенка. Проект «Дети в семье» нужен как раз для этого. Он очень похож на наши региональные проекты, в рамках которых мы помогаем семьям выйти из-за черты бедности, решаем вопросы наших военнослужащих. Такой же подход будем применять и в работе по защите интересов детей, – рассказал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Кроме того, в ходе рабочей встречи стороны обсудили организацию более эффективной и качественной работы по предоставлению технических средств реабилитации, предназначенных для малышей. Зачастую в такой помощи семьи нуждаются больше всего, причем оперативно.

В стенах областного правительства детский омбудсмен также провела совещание с участием руководителей региональных министерств и организаций. На заседании обсуждались вопросы, связанные с улучшением работы профильных ведомств, служб и учреждений.

На Сахалине состоялось открытие первого трудового семестра Всероссийского студенческого медицинского отряда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ь стала площадкой для работы первого на Дальнем Востоке Всероссийского студенческого медицинского отряда «Галиотис». Студенты российских

медицинских вузов приехали трудиться в регион на период каникул. Для островных лечебных организаций – это возможность замены сотрудников на время отпусков, а для ребят – способ присмотреться к потенциальному месту жизни и работы.

11 студентов из Санкт-Петербурга, Архангельска, Нижнего Новгорода и других российских городов до конца лета будут работать в медицинских учреждениях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под руководством опытных островных специалистов. Будущие врачи займут должности среднего и младшего медицинского персонала – в соответствии с уровнем подготовки и разрешением по законодательству.

– Это полезный опыт в профессиональном плане. Ребята познакомятся с сахалинской системой здравоохранения – признанной в стране одной из передовых. Возможно, отсюда начнется старт их карьеры, а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ь получит мотивированных специалистов, – рассказала руководитель медицинского направления Центрального штаба Российских студенческих отрядов Кристина Сидорова.

Для работы студентов закреплены три медицинских учреждения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 городская больница имени Анкудинова, Центральная и детская поликлиники. Во всех государственных лечебных организациях при трудоустройстве молодые специалисты могут рассчитывать на комплекс мер социальной поддержки. Будущие врачи уже сейчас рассматривают островной регион, как место дальнейшей работы.

– Подъемные от 1 миллиона 800 тысяч рублей, обеспечение жильем, оплата аренды жилья – эти меры позволяют чувствовать себя уверенно в начале трудового пути. Также для молодого специалиста у нас разрабатывается индивидуальный план профессионального развития – по выбору специализации, прохождения стажировки. Содействуем в решении вопросов, связанных с детским садом, школой, трудоустройством супругов, – ответил на вопросы студентов министр здравоохранения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Владимир Кузнецов.

Для оказания медицинской помощи населению в регионе созданы и мобильные отряды врачей. С мая такие бригады курсируют по районным центрам, в которых наблюдается наибольшая потребность в узких специалистах – офтальмолога, стоматолога, невролога и других врачах. Такая работа будет осуществляться на постоянной основе.

Восьмое затопленное судно утилизировали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с начала года

Затонувшее судно под названием «СДС 005» подняли с морского дна в Холмском районе, работы проводили в селе Зырянское. Всего до конца года в рамках федерального проекта «Генеральная уборка» планируется удалить 26 затонувших судов в Корсаковском, Северо-Курильском и Невельском районах.

– Копившаяся годами проблема начала решаться. Мы набрали высокий темп в этой работе. Для сравнения за весь прошлый год удалили 4 судна, в этом году планируется 26. Сейчас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ь входит в тройку лидеров среди регионов ДФО по утилизации затонувших судов, – отметил Валерий Спиченко, министр транспорта и дорожного хозяй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СДС 005» – это 50 тонн лома черных металлов, которые пролежали в воде 24 года. Известно, что среднетоннажное судно предназначалось для промысла рыбы и нерыбных объектов, его выбросило на камни из-за потери хода.

– В этом году поднято и утилизировано уже 8 судно, в ближайшие пару месяцев удалим еще 5 объектов. До конца года будет выполнен план в полном объеме. На эти цели в бюджете региона заложено более 300 миллионов рублей. Большая часть затрат вернется по итогам реализации металлолома и в виде федеральных компенсаций, – сказал Максим Жоголев, заместитель министра транспорта и дорожного хозяй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Для обследования акваторий проводились съемки летательными и подводными беспилотниками. Этот метод позволил получить данные о форме, местоположении и степени коррозионных разрушений объектов.

К сегодняшнему дню затонувшие суда учтены в акваториях, прилегающих к Корсаковскому, Невельскому, Холмскому, Томаринскому, Углегорскому, Долинскому, Макаровскому, Поронайскому, Александровск-Сахалинскому, Южно-Курильскому и Северо-Курильскому районам. При этом работы продолжают. Так, водолазы Сахалинского филиала Морской спасательной службы совместно с представителями ФАУ «Российский морской регистр судоходства» завершили обследование подводной части корпуса судна Xing Yuan. Оно село на мель на расстоянии 50 метров от берега на подходе к морскому порту Холмск. Планируется провести процедуру признания безвозвратной утраты аварийного судна и вывода его из-под таможенного контроля для последующей утилизации.

Напомним, реализация проекта «Генеральная уборка» инициирована Правительством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в рамках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программы «Охрана окружающей среды».

(По материалам пресс-службы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월드옥타, '2023 차세대 글로벌 창업무역스쿨 모국방문교육' 실시

7월 18~24일 경기도 화성 YBM연수원에서 진행

세계한인무역협회(회장 장영식, 이하 월드옥타)는 7월 18일부터 24일까지 6박 7일간 경기도 화성 YBM연수원에서 '2023 차세대 글로벌 창업무역스쿨 모국방문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월드옥타는 글로벌 한인 경제인 육성을 위해 매년 전 세계 6개 대륙에서 지역별로 '차세대 글로벌 창업무역스쿨'을 개최하고, 그 중 우수한 수료생을 초청 또는 추천받아 한국에서 '모국방문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모국방문교육은 ▲한민족 글로벌 경제리더 육성 ▲국내기업 수출지원 전문인력 육성 ▲역사의식 제고 ▲국내·외 차세대 네트워크 형성 등을 목표로 재외동포 차세대들의 한민족의 정체성 확립과 국제적 비즈니스 네트워크 형성 돕고 있다.

올해 교육에는 '차세대 글로벌 창업무역스쿨'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거둔 참가자 등 12개국 25개 도시에 거주하는 월드옥타 차세대회원과 국내 대학생 참가자 등 70여명이 참가했다.

교육생들은 교육기간 동안 '용기와 열정'을 주제로 한 장영식 월드옥타 회장의 강연을 시작으로 ▲한인 경제영토 확신을



지난 7월 18일 오후 4시 경기도 화성 YBM연수원에서 열린 월드옥타 '2023 차세대 글로벌 창업무역스쿨 모국방문교육' 입학식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월드옥타)

위한 차세대의 역할 ▲역사의식 및 민족혼 ▲세계 경제질서 변화와 중국 경제 전망 ▲인공지능(AI)을 이용한 사업 방안 ▲퍼스널 브랜딩 등을 주제로 한 다양한 강의를 듣는다.

또한 특별 프로젝트로 창업 아이템을 발굴해 사업계획을 발표하고, 육군사관학교를 방문하는 시간도 갖는다.

18일 오후 열린 입학식에는 월드옥타 장영식 회장과 이영현 명예회장, 이승민 정책담당 부회장, 노성희 사업담당 부회장, 이종원 차세대담당 부회장, 홍해 차세대위원회 위원장 등이 참석해 참가자들을 격려했다.

장영식 회장은 입학식에서 "2003년 시작해 올해 21기를 맞은 모국방문교육은 각국 재외동포 청년들이 한자리에서 단순히 무역과 창업에 대한 교육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한민족의 정신과 문화, 역사 등을 체험하는 기회"라고 강조하며, "해외에서 오랜 시간 거주한 한인 청년들이나 해외에서 나고 자란 이민 2~4세가 한민족의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재외동포신문)

케이팝 4세대 그룹에 대하여

한국이 만드는 문화 콘텐츠는 예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전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으며, 그 중심엔 케이팝이 있다 지금도 주 활동을 이어가는 이들을 우리는 4세대 케이팝 그룹이라 말한다 이들은 기존 세대와 무엇이 다르며, 이들이 만들어가는 케이팝 문화는 무엇이 다를까

세대론은 시대와 분야를 막론하고 호사가(好事家)에게 인기 좋은 재료이다. 이전과 조금이라도 다른 점이 발견되면 '이것이 바로 새로운 세대'라는 간판을 거는 것만으로도 대중은 새롭게 받아들이며 관심을 갖기 때문이다.

케이팝도 마찬가지다. 세대를 나누는 정확한 기준이나 룰이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우리는 이전과 다른 특징, 그러니까 그룹 구성 형태나 활동 지역, 콘셉트 등 이전과 다른 뚜렷한 특징이 보이는 그룹이 대거 나타났을 때 이들을 이전과 다른 새로운 세대로 구분 지었다.

케이팝 그룹 1세대부터 4세대까지

1세대 케이팝 그룹 중 하나이자 국내 최초의 아이돌은 1996년 데뷔한 SM 엔터테인먼트의 H.O.T.이다. 이후 1997년 6인조 그룹 젝스키스가 데뷔하면서 H.O.T.와 경쟁 구도를 만들며 활동했고, 여자 아이돌 그룹으로는 1997년 S.E.S.가, 1998년 핑클이 데뷔해 경쟁 구도를 이어갔다. 이후 2세대로 넘어가기 전 신화, god, 쥬얼리, 보아 등 실험적 특징을 지닌 1.5세대 아이돌 그룹이 나왔고, 이 시기에 중국, 일본 등 동아시아 일부 지역에서 한국 아이돌 그룹이 인기를 끌면서 '한류' 개념과 일부 일본 언론에서 '케이팝'이라는 용어가 사용되기 시작했다.

이후 케이팝이 급격히 성장하면서 과거 신비주의를 고수하던 케이팝 1세대 그룹과는 달리 케이팝 2세대 그룹은 친밀한 이미지를 추구하며 각종 예능 프로그램 출연 등을 통해 만능 엔터테이너로 활동했다. 대표적인 그룹이 빅뱅, 슈퍼주니어, 소녀시대, 원더걸스 등이다. 이들은 국내 시장뿐만 아니라 월드 투어를 통해 국내외 대형 팬덤을 구축하기 시작했다.

국내 활동을 통해 인지도를 높인 뒤 해외에서 활동하던 이전 세대와는 달리 케이팝 3세대 그룹의 특징은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 국내외 동시 성장을 꾀했다는 것이다. 또한 서바이벌 프로그램을 통해 데뷔 전부터 탄탄한 팬덤을 확보하기도 했다. 또한 케이팝의 질적 향상이 폭발적으로 늘어난 시기이기도 하다. 이를 이끌어낸 주역은 엑소, 방탄소년단, 워너, 레드벨벳, 마마무 등이다.

3세대 케이팝 그룹의 출현 이후 케이팝을 이끌어가는 이들은 대륙과 국가 등의 경계



투모로우바이투게더는 앨범을 발매할 때마다 특유의 동화적 상상력과 스토리텔링으로 10~20대와 정서를 공유하며 탄탄한 팬덤을 구축했다. © 빅히트 뮤직

에 구애받지 않으며 온라인과 오프라인까지도 구분 짓지 않고 활동하고 있다. 여기에 그룹마다 독특한 개성과 세계관을 펼치며 본격 케이팝 4세대 시대의 시작을 알렸다. 나는 아무튼 뭔가 다르다며 "달라달라"를 외치던 ITZY가, 어느 날 머리에서 자란 뿔을 부적삼아 이전 세대와 선을 긋던 투모로우바이투게더(TOMORROW X TOGETHER)가, 밀레니엄 어딘가쯤의 향수를 사정없이 자극하며 등장한 뉴진스(NewJeans)가 모두 케이팝 4세대 대표 그룹이다.

케이팝 4세대 그룹의 중요 키워드

케이팝 4세대를 이끌어가는 그룹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해외 활동이다. 방탄소년단 이전까지 그룹의 해외 활동은 당연한 것은 아니었다. 2001년 자신의 데뷔곡인 〈ID:Peace B〉를 일본어로 번안해 일본에서 데뷔한 보아(BoA)처럼 선배들이 공들여 다져 놓은 일본 시장 정도를 제외하면 케이팝 가수에게 해외 시장은 여전히 쉽게 밟을 들일 수 없는 곳이었다. 싸이(PSY)가 〈강남스타일(Gangnam Style)〉로 미국에서 인기를 얻었음지라도, 여전히 도전 이상의 의미를 갖기는 어려운 상황

이었다. 한한령 등으로 장단 맞추기 바쁜 중국 시장 역시 마찬가지였다. 그러나 방탄소년단 이후는 달랐다. 아이돌 그룹과 케이팝, 나아가 한국 대중문화에 주목하는 시선이 급격히 늘어났다.

이러한 변화로 2020년을 전후해 데뷔한 4세대 그룹은 기획과 마케팅에 있어 '해외'는 다른 무엇보다 중요한 키워드였다. 다양한 국가의 언어 구사가 가능한 멤버를 그룹에 포함하는 건 기본이고, 음악에서 퍼포먼스까지 콘텐츠 전반을 즐기는 사람들이 한국에만 한정되지 않는다는 보편적인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활동을 꼭 한국 중심으로 해야 한다는 인식도 없어졌으며, 나아가 그룹 구성원 가운데 한국인이 없어도 케이팝은 케이팝이라는 주장을 하는 이도 늘어났다.

유명 아이돌 그룹이 새 앨범과 관련한 프로모션을 해외 방송을 통해 시작하는 게 더 이상 어색하지 않았고, 데뷔 100일 만에 북미 투어를 개최하며 탄탄한 해외 팬덤을 구축한 뒤 본격적인 국내 공략에 나서며 유의미한 성과를 낸 그룹 에이티즈(ATEEZ) 같은 사례도 심심치 않게 등장했다.

뚜렷한 개성

4세대 그룹의 또 다른 특징은 일명 젠지(Generation Z)라고 불리는 세대와 시대정신을 공유하는 그룹의 등장이다. 투모로우바이투게더의 경우 데뷔 당시, 현재 세대 전반에 어린 은은한 우울을 특유의 동화적 상상력으로 풀어낸 스토리텔링으로 주목 받았다. 이들의 곡은 〈어느 날 머리에서 뿔이 자랐다(CROWN 昨天頭髮中長得角)〉, 〈5시 53분의 하늘에서 발견한 너와 나(5點53分的天空下發現的你和我)〉, 〈9와 4분의 3 승강장에서 너를 기다려(Run Away 在九又四分之三站臺等你)〉처럼 제목부터 알쏭달쏭하다. 어른들은 모르는 우리만의 수수께끼 같은 언어와 감성에 초점을 맞추며 독보적인 면모로 10~20대 팬을 중심으로 점차 몸집을 불려 나갔다.

뚜렷한 개성을 가진 그룹의 출현과 동시에 이전 세대와 달리 여성 그룹의 강세가 돋보이는 것도 주목할만한 점이다. 먼저 아이브는 2021년 12월 데뷔 이후 내내 '나'에만 집중했다. 나를 사랑하다 못해 나와 사랑에 빠져 버린 나르시시즘을 노래하는 이들의 외침은 화려하고 쿨한 그룹의 색과 기가 막히게 어울렸다. 이 훌륭한 조화는 아이브 싱글 앨범

〈Eleven(2021)〉, 〈Love Dive(2022)〉, 〈After Like(2022)〉3연속 히트와 2022년 최고의 신인 그룹이라는 타이틀, 여기에 케이팝 4세대 그룹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그룹이라는 영광의 왕관을 차례로 씌웠다.

르세라핌은 음악을 관통하는 주제적 메시지가 돋보이는 그룹이다. 2022년 데뷔 초 나의 욕망과 시련에 관해 이야기 한 이들은 지난 5월 우리에게 대한 이야기로 메시지를 확장하면서 데뷔 이후 줄곧 이어온 주제를 이어가면서도 한층 확장된 메시지로 존재감을 이어갔다. 뉴진스는 매일 찾게 되고 언제 입어도 질리지 않는 진(Jean)처럼 시대의 아이콘이 되겠다는 포부처럼 데뷔와 동시에 레트로 감성이 돋보이는 콘셉트와 곡, 안무, 실력 등이 화제가 됐다. 데뷔곡 〈어텐션(Attention)〉에 이어 〈하이프 보이(Hype boy)〉도 빌보드 차트에 입성한 것에 이어 10대의 풋풋하고 순수한 콘셉트에 대중이 열광했으며 그 인기는 업계까지 이어져 국내외 광고계를 석권할 정도였다.

포스트코로나 시대 케이팝

흥미로운 건 케이팝 4세대 그룹 초기 주요 키워드로 언급되던 메타버스를 비롯한 가상 공간에 대한 논의는 상당히 수그러들었던 점이다. 해당 논의의 꼭짓점에 놓여 있던 그룹 에스파(aespa) 역시 아바타를 중심으로 한 독특한 세계관보다는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의 핵심과도 같은 SMP(SM Performance)를 원형 그대로 재연하는 계승자로서의 가치를 더 높게 인정받는 모양새다.

가상이 아니면 서로의 생사조차 확인할 수 없었던 팬데믹 기간, 케이팝이 깊이 깨달은 건 오히려 사람과 사람 사이를 더 가깝게 이어줄 수 있는 기술 활용의 중요성이었다. 이는 해당 시기 가장 흥한 케이팝 비즈니스가 가수와 팬 사이를 감정적으로 더 깊게 이어주는 각종 플랫폼이었다는 점만 봐도 충분히 유추할 수 있는 결론이다.

그 어느 때보다 파란만장한 시절을 보내고 있는 4세대 케이팝의 윤곽이 이제야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새로운 세대가 이끌어갈 새 시대 케이팝의 지형도도 이제 막 그려지기 시작했다.

김윤하(Kim Yoon-ha 金侖河)
대중음악평론가
(출처: '코리아나'계간, 2023 여름)

이 모 저 모

(2면의 계속)

이 프로젝트 실시는 유즈노사할린스크 시행정부 지원으로 가능했다. 막심 소로카는 소셜 프로젝트 공모전 '우리과 우리 도시'에서 우승했는데 지원금은 이 여행에 관한 영화 제작 장비 구입에 쓸 것이라고 전했다. 영화는 유즈노사할린스크시의 6개 학교에서 상영될 예정이다.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стартовала «Большая Амурская экспедиция» по пути Невельского

Участники экспедиции повторяют путь Невельского 1852 года. Дойдут до Де-Кастри, затем перевезут лодки до озера Большой Кизи. Сплывут по Амуру, далее выйдут в Амурский лиман на юг, пройдут пролив Невельского и вернутся в Александровск-Сахалинский. В общей сложности путь займет 20 дней. Подготовка к экспедиции заняла около двух лет, сообщили в пресс-службе администрации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Торжественный старт прошёл 15 июля в областном центре. От памятника адмиралу Г. И. Невельскому два экипажа отправились на машинах из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до Александровска-Сахалинского. Водная часть экспедиции началась 16 июля.

Как рассказал руководитель клуба «Sakhalin fishing and travel», член Русского географического общества Максим Сорока, это седьмое масштабное путешествие участников клуба и второй раз по маршруту Г. И. Невельского.

Реализация проекта стала возможной в том числе благодаря поддержке администрации города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Максим Сорока победил в конкурсе социальных проектов «Мы и наш город». Средства были направлены на покупку техники для съёмки фильма о путешествии, который будет показан в шести школах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사반투이, 유즈노사할린스크의 도시 공원에서 기념

다민족 우정의 날 행사인 "어린이 사반투이"가 가까운 문

화휴식 공원에서 열렸다. 유즈노사할린스크와 사할린 주내 여러 지방에 있는 어린이 단체들이 이 행사에 참여했다고 동부 군사구 보도부가 전했다.

행사는 각 민족의 전통 의상을 입은 어린 아티스트들의 축제 행렬로 시작되었다. 이어 지역 창작 팀들의 콘서트가 진행되었다. 동시에 마스터 클래스, 민속 놀이와 스포츠행사가 열렸다. 관객들은 다양한 민족 요리를 맛보고 공예품 및 민족 문화 전시회를 방문할 수 있었다.

마스터클래스는 누구나 참여 할 수 있는 열린 클래스로, 동결 건조 인스턴트 수프 만들기나 위장그물 뜨기 등의 마스터 클래스가 진행되었다. 그물은 특별 군사 작전지에서 사용될 것이다. 유즈노사할린스크 주둔지의 한 군부대 장병들이 행사 참가자들을 위해 야전 주방에서 따뜻한 메밀 밥과 차를 준비했다.

Сабантуй отметили в городском парке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Многонациональный праздник дружбы «Детский Сабантуй» прошёл в парке культуры и отдыха имени Ю.А. Гагарина. В мероприятии приняли участие детские коллективы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и других районо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сообщили в пресс-службе Восточного военного округа (ВВО).

Мероприятие началось с праздничного шествия юных артистов в национальных костюмах. Затем состоялся концерт творческих коллективов региона. В то же время проходили мастер-классы, народные игры и состязания. Гости смогли попробовать различные национальные блюда, посетить выставку прикладного искусства и национальной литературы.

Любой желающий мог поучаствовать в мастер-классах, например, по изготовлению сублимированных супов быстрого приготовления или вязанию маскировочных сетей. Эти сети отправят военнослужащим ВВО для использования в ходе СВО. Военнослужащие одной из воинских частей Южно-Сахалинского гарнизона приготовили горячую солдатскую кашу и чай налевой кухне для участников мероприятия.

곰, 도시 중심에 들어와 사할린 택시 운전사 위협

일전에 오하에서 한 여성 택시기사가 손님을 기다리고 있던 중 승객 대신 곰이 그녀에게 다가왔다고 astv.ru가 보도했다.

"앉아서 손님을 기다렸는데, 오랫동안 나오지 않았어요. 다시 전화했더니 손님이 '지금 갈 건데, 곰이 물러날 때까지 기다리세요.'라고 하길래 '누군가 금요일 밤을 즐겁게 보내고 술에 취해 농담을 하고 있네'라고 생각했죠. 고개를 들었더니 보닛 위에 곰의 대가리가 보였어요."라고 여성이 당시 상황을 밝혔다.

그녀는 "곰이 차량 주위를 걸어 다니다 조수석 문 쪽으로 접근해 냄새를 맡고 창문을 들여다 보았다"고 덧붙였다. 사할린 여성은 너무나 겁이 나 죽음을 맞이할 생각을 했다.

이걸 본 남성 승객은 소리를 지르고 곰을 쫓아내기 시작했다. 곰은 그 자리를 떠났는데 나중에 곰은 은행 건물 근처에 다시 발견됐고 지나가던 운전자들이 곰에게 경적을 울렸다. 곰은 울타리를 넘어 도망쳤다고 전해졌다.

Медведь вышел в центр города и напугал таксиста на Сахалине

На днях ночью в Охе женщина-таксист ждала пассажира, но вместо него к ней подошел медведь, сообщил astv.ru.

«Сию, жду пассажира, долго не выходит. Перезваниваю, мужчина говорит: "Сейчас подойду к вам, только подожду, когда медведь отойдет". Я тогда подумала: кто-то пятницу весело провел, выпил и шутит. Поднимаю голову, а у меня над капотом голова медведя!» — поделилась женщина.

Она добавила, что хищник обошел автомобиль, подошел со стороны пассажирской двери, нюхал и заглядывал в окно. Сахалинка сильно испугалась и думала уже прощаться с жизнью.

Пассажир, увидев происходящее, стал кричать и таким образом отгонять косолапого. Медведь стал уходить. Позже его видели возле банка. Проезжающие мимо автомобилисты сигналили зверю. Тот перелез через забор и удалился.

(사할린주 언론기관 자료에서)

СТОМАТОЛОГИЧЕСКАЯ КЛИНИКА "РАДИКС"

Сделай свою улыбку красивой!!!



Тел.: 50-00-50; 43-31-31

Реклама

Подпишись на газету "Сэ корё синмун"!

Поддержи национальную газету!

Только у нас самые свежие, эксклюзивные и достоверные новости и публикации из жизни корейского сообщества Сахалина, а также новости из Южной и Северной Кореи. Стоимость подписки на 1 месяц — 101 руб. 00 коп.

Индекс газеты: ПР575

Газету можно выписать во всех отделениях связи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광고-광고

새고려 신문사는 독자 여러분이 신문에 실고자 하시는 광고나 생일 또는 여러 축하문을 접수합니다. 접수 방법은 전화: 43-59-80, 43-72-94.

이메일 : vika131065@mail.ru, skr@sakhalin.ru 로 연락 바랍니다.

Уважаемые читатели!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предлагает печатные площади для размещения рекламы, объявлений и поздравлений.

Контакт. телефон: 43-59-80, 43-72-94. Адрес эл.почты: vika131065@mail.ru, skr@sakhalin.ru

Поможем "Сэ корё синмун"

Пожертвования просим отправлять на расчетный счет: 407038107503400000024 в Дальневосточном банке ОАО "Сбербанк России" г. Хабаровск.

Корр.счет: 30101810600000000608

БИК: 040813608

Получатель: АНО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ИНН 6501011406, КПП 650101001.

Назначение платежа: пожертвование.

본사 편집부

Редакция не несет ответственности за содержание объявлений и рекламных материалов.

Рукописи не рецензируются и не возвращаются. Мнение редакции не всегда совпадает с мнением авторов.

광고의 내용에 대해서 신문사가 책임을 지지 않음.

<p>Издатель: АНО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Новая корейская газета)</p> <p>Гл. редактор Бя В.И. 사장(주필) 배 워토리야</p>	<p>Учредители газеты: автономная некоммерческая организация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Правительств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p>	<p>Адрес издателя и редакции: 693020 г.Южно-Сахалинск, ул. Чехова, 37 Телефон/факс: 43-59-80, 43-72-94, 43-67-85 E-mail: skr@sakhalin.ru http://cafe.naver.com/sekoreasinmun.</p>	<p>Отпечатано в АО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ная типография», ул. Дзержинского, 34 Время подписания в печать: По графику - четверг 16-00 Фактически - четверг 23-00</p>	<p>Издаётся с 1 июня 1949 года. Выходит по пятницам 50 раз в год. Индекс ПР575 Тираж 1100 экз.</p>	<p>Газета зарегистрирована Управлением Федеральной службы по надзору в сфере связи, информационных технологий и массовых коммуникаций п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Свидетельство о регистрации СМИ ПИ № ТУ65-096 от 22 сентября 2011 г.</p>
--	---	--	--	--	--